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2 “우리도 뛰다”



동양저축은행 직원들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100% 참가' 및 '100% 완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직원 100% 참가·100% 완주”
‘작지만 강한 은행’ 저력 과시

■ 동양저축은행

“전 직원의 100% 완주를 통해 지역 내 대표 저축은행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동양저축은행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와 인연이 깊다. 올해로 4년째 대회 참가를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 강(58) 은행장을 비롯, 전 직원 18명이 100% 완주를 목표로 대회에 참가한다. 지난 대회에서도 19명의 직원이 5km코스를 모두 완주할 만큼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현철(46) 총무팀장은 지난 2005년 3·1절 마라톤에 참가한 이후 매일 회사 인근 헬스장에서 체력을 다질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당기순이익 62억, 3년 전보다 3배 꺾중

이 팀장은 4번째로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런닝머신으로 하루 4~5km를 뛰고 있다.

이 팀장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이후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운동을 통한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체크는 자연히 회사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마라톤을 통한 직원들의 단합된 힘은 회사의 실적 향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동양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2억6천만원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 전인 2004년(20억1천만원)에 비해 3배 가량 급성장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5.9%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BIS비율 8% 이상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인당 생산성 3억3천만원 전국 최고 수준

특히 이 회사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은 개별 생산실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동양저축은행의 1인당생산성은 3억3천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은행이 업계에서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강 은행장은 “1983년 창립 이후 전 직원이 경영안정과 이미지 개선에 매달린 결과 광주·전남의 대표 저축은행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또 “직원들의 단합된 힘은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대회에서도 전 직원들이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맨 앞에서 뛰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연아 훈련 재개 “통증 없다”

고관절 재활 치료 2주만에

세계피겨선수권 출전 가능성

고관절 통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연아(19·군포 수리교·사진)가 조심스럽게 스케이트화를 신고 빙판 위에서 첫 훈련을 시작해 내달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출전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을 주고 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19일 “김연아가 18일 저녁 늦게 빙상장에서 스케이트화를 신고 2주 만에 첫 훈련에 나섰다”며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어서 점프 등 고도의 동작을 뺀 가벼운 스케이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빙판 훈련에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은 김연아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새벽훈련에 나서 1시간 동안 스케이팅을 실시했다. 첫날보다 연기 동작을 더 추가한 김연아는 점프는 뛰지 않았지만 스텝과 스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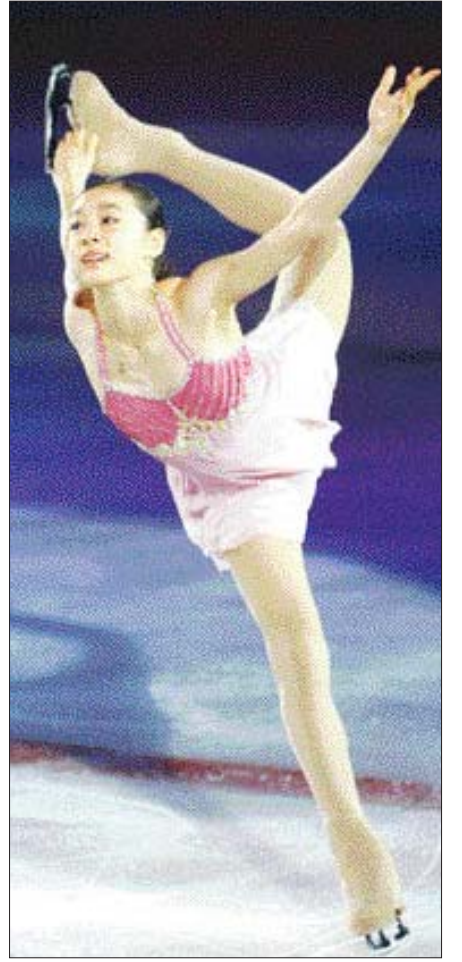
연기를 통해 스스로 몸 상태를 조절하면서 훈련을 펼쳤다.

이틀 동안 빙판에 선 김연아는 “현재로서는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훈련에 불편한 사항은 없다”며 “훈련을 하는 동안 아픈 부위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하루 두 차례씩 스케이트화를 신고 훈련에 나설 작정이었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매일 오전에 한 차례만 빙판에 서기로 했다.

IB스포츠는 “21일 재검진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날 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캐나다로 이동해 마무리 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불러들여 국내에서 훈련을 한 뒤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아는 이날 오전 동대문구 답십리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원장 조성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나설 예정이다.



고교축구선수권 4월 해남서 열린다

오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해남 우슬경기장과 우슬체육공원 축구전용구장, 해남동초등학교에서 ‘제 63회 전국 고교 축구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대한축구협회 등과 유치 협약을 체결

해 열리게 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40개 팀 1천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2006년부터 각종 전국 대회를 활발하게 유치해 오고 있는 해남군은 체육인 출신의 김충식 군수가 폭넓은 인맥을 활용

15일부터 11일간 우슬경기장에서 전국 40개팀 1천400여명 참가

해 다음 달 19일부터 개최될 ‘춘계 남녀 배구 연맹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테니스 황제’ 페더러 4년 연속 올해의 스포츠맨

‘스포츠우먼’엔 에빙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사진)가 로리우스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스포츠맨’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최고 권위의 원불단을 5연패해 비온 보리(스웨덴)와 타이틀 이룬 페더러는 19일(한국시간) 지난 한 해 스포츠 전 종목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남자 선수에게 주는 ‘올해의 스포츠맨’에 선정된 뒤 “세 차례 수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내게 또 상을 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는 여자 테니스에서 마르티나 힝기스(은퇴)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쥐스틴 에빙(1위·벨기에)이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이혼했던 에빙은 “힘든 한 해였지만 투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결국 생애 최고 시즌을 보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자동차경주(F1) 역사상 최초의 흑인선수인 루이스 해밀턴(영국)은 ‘올해의 신인상’을, 출산 후 2년만에 뉴욕 마라톤 여자부에서 우승한 폴라 래드클리프(영국)가 ‘올해의 재기상’을 받았다. 지난해 럭비 월드컵에서 전승 우승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럭비대표팀이 ‘올해의 팀’을 수상했다.



- 20일(수)
 - ▲동계체육대회 (14 : 00·KBS2)
 - ▲V리그(여자부) <GS칼텍스 : 도로공사> (16 : 30·KBSNSPORTS)
 - ▲여자 프로농구<신세계 : KB국민은행> (16 : 50·SBS스포츠)
 - ▲남자 프로농구 <LG : KCC>(18 : 50·SBS스포츠), <KT&G : 삼성>(18 : 50·X-ports)
 - ▲V리그(남자부) <LIG손보 : 현대캐피탈>(19 : 00·KBSNSPORTS)
 - ▲동아시아 축구 <한국 : 북한>(21 : 35·SBS)

- 21일(목)
 - ▲2008 WGC 액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64강전(04 : 00·SBS골프·SBS스포츠)
 -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울림 피크리옹 : 맨체스터 Utd)(04 : 30·MBCE-SPN)

SONY

Full HD 1080p 해상도
BRAVIA의 특별한 가치

Sony Family

www.sony.com

062.522-2000

www.gwangju.co.kr

1544-8567